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3월31일(주)새벽5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중윤 목사)는 다음주일 부활절 새벽예배를 노회 소속 전교회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하여 잠실 실내체육관을 예배 장소로 정하였다.

금번 부활절 새벽예배는 5시에 시작되며 반주는 경찰악대가 맡기로 했다. 말씀은 장신대 총장 고흥수 목사 전하게 되며 우리교회 이중윤 목사는 사회를 맡는다.

또한 서울 강남노회 소속 전교회가 부활절 새벽예배를 연합하여 드리게 됨에 따라 교회는 부활절 새벽기도회는 따로 갖지 않게 된다. 믿음 안에서 형제 된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며 성도들은 참회의 기도와 감사로 부활절 주일을 준비한다.

제5차 아시아 로잔 위원회 후원회 발족

2002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본 교회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ALCOE V)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KIMCHI 후원회가 발족되었다. 아시아 22개국의 지도자급 목회자 100여명과 강사20여명을 포함 약 120명의 목회자들이 나홀 동안 아시아 지역교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을 위한 공동전략을 모색하게 되는 본 대회는 26일 오후 6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3일간 새벽기도, 세미나, 지역별 토의, 교계 시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케 된다.

후원회는 대회기간 중 100여명의 참가자들의 민박(home stay)을 준비하고 여비와 식대 등의 후원을 준비 진행케 된다. 후원회는 1구좌 당 10만원으로 천 구좌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이 모든 준비사항을 관리하게 될 후원회가 지난해 아래표와 같이 집행부를 발족하였다. 후원회에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가 요청된다

분과	위원장	차장	지도교역자
기획/진행	김세재 장로	오광환 집사·우지원 집사	김운호 목사
민박지원	하영수 장로	탁경준 집사·김복승 집사	이성득 목사
시설지원	성준경 장로	오유식 집사·조철기 집사	고경선 목사
재정지원	오정수 장로	신용식 집사·이종만 집사	이규정 목사
홍보지원	노승성 장로	서훈식 집사·김시환 집사	정윤돈 목사
안내/새벽기도회	최중시 장로	조장식 집사·영준경 집사	윤영국 목사
식사지원	윤찬오 장로	최양혜 권사·이영희 권사	지예영 전도사

신혼가정부 홈페이지 '샘무가' 개편

신혼가정부는 부서를 홍보하고 부서 내의 공지사항들을 게시하게될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신혼가정부 홈페이지(<http://www.nfamily.org>)는 좌측의 주소로 직접 접속하거나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모음란 링크 게시판을 통하여 접속하면 된다.

남선교회 친선체육대회

4월13일(토) 1시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남선교회 친선 체육대회'(진행위원장: 김광신 장로)를 오는 4월 13일(토) 오후1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갖기로 하여 준비중이다.

이 날, 족구와 발야구, 배구 등 3개 종목의 경기를 펼칠 예정이며 한편으로 태신자를 전도하는 전도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선교회연합회에서는 각 선교회별로 모든 회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여 풍성한 교제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 (개역개정판 출 20:14)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NIV Ex 20:14)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수난의 금요일 금식 기도

교회는 교회 절기 상 고난주간이 되는 금주를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주간으로 정하고 특별새벽기도회와 수난의 금요일에는 금식기도를 갖는다. 금주 새벽기도회는 특별새벽기도회로 모두 담임목사인 이중윤 목사의 인도로 드리게 되며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기하며 해있는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게 된다. 다락방 모임은 연합으로 금요일 밤8시 교회에서 갖는다.

대학·청년부 토요일 집회 신설 4월6일(토) 4시30분

우리교회 젊은이들의 모임인 대학부와 청년부의 모습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고, 이후 자체 모임을 가져오던 대학, 청년부는 오는 4월6일(토)부터 토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갖게 된다.

토요일 집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대학, 청년부 연합으로 구성된 '연합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의 시간을 갖고, 대학, 청년부 지도 교역자의 메시지와 조별 G.B.S(그룹성경공부) 등으로 진행된다.

<토요일집회>는 청년들의 문화와 정서에 맞춘 집회로서, 청년 자체 교재 제작, 청년 찬양팀 신설, 청년의 문화에 맞는 Skit Drama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광고 등 청년 문화에 맞는 새로운 집회로 구성될 계획이다. 따라서 주일 오후 청년예배후 청년부모임은 '청년부교회학교'로 운영된다.

학부모 초청세미나 3월26일(화) 10:30~12:30

유치부(부장 이계홍 집사)는 오는 26일(화) 오전 10시30분 8층 802호 비전홀에서 학부모 초청세미나를 갖는다. 이런 세미나는 "엄마와 함께 하는 자녀교육"을 주제로 하여 이중윤 목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진행된다. 모든 학부모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이날 함께 기도하며 친교와 육아정보도 함께 교환케 된다.

육사세례식

4월 20일(토) 오후2시

우리교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의 금년도 일정이 확정되었다. 금년 육사 세례식은 4월20일 오후 2시 육사 교회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이중윤 목사와 담당 교역자, 장로, 비전2020 운동본부 위원, 찬양대원들이 참석하여 육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집행하고 찬양을 드리게 된다.

태신자명단

박현진 박지원 홍진형 제헌명 이동열 김병운 하재영 박세진 이동진 이명진 최계우 이동찬 정용주 박영득 김중성 한영자 김성민 이진아 이준호 진수연 (다음호 계속)

이사야 강해

이스라엘의 회개

(이사야 59장 9 - 15절)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보시지 않기에는 하나님의 시력이 너무 민감하시고 그것을 용인하고 묵과하기에는 그의 시각이 너무 순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한 것은 이스라엘에 공평과 개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정의와 사법권이 국민의 죄를 제거하지 못할 때 그 죄는 국가적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종운 목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으로부터 잘못을 지적 받을 때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위선과 거짓된 모습, 형식적인 예배 등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했을 때 놀랍게도 그들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을 범죄한 이스라엘에 포함시켜 스스로 백성을 대표하여 자복합니다. 앞에서는 여호와의 대언자로 백성들의 죄를 공격한 선지자가 본문에서는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장과 같이 그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바벨론 포로의 후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 그들은 자기들의 죄 값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한 줄 알았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므로"(9절).

'그러므로'는 이스라엘의 죄 값으로 인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고 그의 공의가 자기들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했으니 참으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까닭이 자기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자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부당하게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무런 구원의 손을 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때 비로소 그들은 그들이 자신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자신을 범죄 한 백성 안에 포함시키고 그 백성을 대표하여 고백합니다. 탕자도 자기 불행이 죄 값인 줄 알았을 때(눅 15:18-19)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죄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볼 줄 모릅니다. 자기를 볼 줄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자의식을 갖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2. 자기들의 참상을 느낀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므로"(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바라며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어둠으로 덮이므로 괴로워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슬프게 무너진 것이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위대한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에서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탕자도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회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사라

진 사회는 어두운 곳이에요 이런 어두운 사회에서 새벽과 같은 빛을 기다리나 빛은 임하지 않는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비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야곱도 밤에 레아를 맞고 아침에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맹인 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10절).

그들은 어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눈을 감으십니다. 그들은 문을 찾으라고 담을 더듬는 소경과 같고 대낮에도 황혼 때같이 더듬거리다가 넘어지며 어두운 가운데서 죽은 자같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강장한 자'는 바벨론의 기쁨진 들판을 말합니다. 그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시체와 같이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복이 눈앞에 있어서 손만 벌리면 받을 터인데 손을 벌릴 줄 모른니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 없는 자처럼 취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익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곱 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11절).

주린 곱이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것과 같이,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고 구원을 찾으나 그것은 멀리 있다고 했으니 이것을 비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만할 때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비극을 주실 것입니다.

3.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처럼(스 10:10) 그때까지 큰 죄 중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비로소 자기들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손이 자기들의 죄를 치고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죄는 피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한 번 마음에 들어오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시 51:3).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12절)라고 하면서 그들이 죄인임을 명백히 시인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백성들의 죄를 함께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를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증인이 되어 우리 앞에서 정면으로 노려

보며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피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토설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기 보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날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으며 성실이 거리에 얼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13-15절).

이스라엘의 죄목은 십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학대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5계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범하며 사람을 해롭게 한 죄를 범했습니다. 포악과 패역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5계명), '살인하지 말라'(6계명)를 범한 것이며 거짓말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9계명)를 범한 것이고, 성실이 없어진 죄와 정직하지 못한 죄는 '도적질하지 말라'(8계명)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떠난 것은 '간음하지 말라'(7계명)를 범한 것이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함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10계명)는 것을 범한 것입니다. 모처럼 악을 떠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10계명을 범하므로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죄입니다. 사랑과 성실은 사회의 기본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성실이 없어질 때 바른 사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목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 많아서 세상에 가득 찼고 너무 높아서 하늘에 미쳤으며 너무 깊어서 땅속까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보시지 않기에는 하나님의 시력이 너무 민감하시고 그것을 용인하고 묵과하기에는 그의 시각이 너무 순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한 것은 이스라엘에 공평과 개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정의와 사법권이 국민의 죄를 제거하지 못할 때 그 죄는 국가적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여 민족의 죄를 자신 범한 것처럼 울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윤돈 목사님 가정은 최지혜 사모님(전 유치부 지도), 승세(10), 성민(9), 네 식구이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주저 없이 아름다운 아내와 속이 깊은 딸,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999년 6월 서울교회에 부임한 이래, 대학부와 교구위원회, 김치세미나, 목회자 신학세미나 등의 사역을 감당해오신 정목사님은 2002년도부터 순례자와 청년부, 멀티미디어 봉사단, 교육위원회, 3.4교구를 맡고 계신다. 눈코 뜰 새 없이 목회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네 식구는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도 어려워지만 요즈음 목사님 가정은 새록새록 기쁨과 평안이 샘솟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올해부터 확실하게 정착 단체에 들어간 1부 가족예배 덕이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으로 한 은혜를 받고 부터 눈에 띄게 가족의 대화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 기쁨이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받은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생활로 이어지는 것은 다시금 목사님의 목회사역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에 이르는 동안, 사모님의 건강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 그동안 섬겨왔던 유치부를 그만두셨을 때에도 목사님 가족은 가족예배에서 위로 받고 새 힘을 얻으셨다고 한다. 새벽예배를 마치고 교회 업무를 시작하기 전의 잠을 내어 다시 겨여동의 사택으로 들어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신다는 목사님의 일상도 가

교역자 가정을 찾아서 - 정윤돈 목사 가정편

"여기, 이곳을 사모합니다"

족예배의 열매중 하나이다. 가정예배 시간에는 잠언을 많이 묵상하는데,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고 부모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인지라 귀하고 소중하기만 하다. 아이들이 골고루 찬양을 익히도록 따로 정해두고 부르는 찬송은 없지만, <민들레에 마른 풀 같이>(172장)만은 4절까지 암송하여 찬양하는 아이들이 볼 때면 더욱 가정예배를 사모하게 되신단다.

전부터 중국과 북한선교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정목사님은 서울교회와 함께 사역하면서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를 모델로 목숨이 다하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소원해 오셨는데, 서울교회에서 장제식하는 성도 되기를 기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생명보다 귀한 교회, 찬송가 246장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힘쓰자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우주적이고 거룩한 저 하늘의 교회를 믿고 지상의 교회가 그것과 분리된 것이 아님을, 나아가 그 교회가 이 곳을 선포하고, 선교를 해도 여기, 서울교회에서, 주님을

맞이해도 이곳, 서울교회에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 됨을 좀 더 깊이 느끼고 의식적으로 동참하고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우리의 살길이요, 살아야 할 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자고 당부하셨다.

인터뷰를 마치며 기자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신 정목사님은 진실하게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하심에 있어 얼마나 뜨겁고 광활한 통로가 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셨다. 목사님이 사모하시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터뷰를 마친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편집부(나소정)



▶ 최지혜사모, 정윤돈목사님, 승세, 성민이 (왼쪽좌로부터 시계방향)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윤영국 목사

범죄 뒤에 용서가, 나감 뒤에 기다림이, 슬픔 속에 사랑이 있기에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과 오래 참음과 회복이 담겨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짐을 친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사랑합니다.

고난은 무력함이나 실패와 좌절 눈물이 아님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에서 발견합니다. 마치 땅속에 심긴 씨앗 속의 생명, 그 생명의 탄생과 성장 열매입니다. 용기와 승리, 추수의 약속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땅이 기경되어 옥토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고난 중에 거두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비움이고, 채워짐이요, 용납이십니다.

1. 예수님의 고난은 비움입니다.

나의 욕심, 바람, 나의 마음과 감정이 옮겨잡기를 원하는 것들을 비우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 둘

비움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많은 소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비추어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착된 자기애의 쓴 뿌리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과 죄를 벗는 것입니다. 비움은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고 다른 차원의 삶의 승화를 약속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연습하고 고백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묶여있고 갇혀있던 모든 결박을 자유케 하는 비움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안타깝게 붙잡고있는 일이나, 우리를 둘러싼 결박들이 풀려지도록 주님께 하나씩 맡겨드리서 비우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2. 예수님의 고난은 채움의 풍성함입니다.

부인과 배신, 채찍과 가시면류관 무거운 십자가의 짐은 믿음의 용기와 성령의 동행하심, 천국의 소원으로 채우십니다. 격한 감정과 찢기는 아픔, 혼란된 고독을 하나님은 끝까지 채우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다 이루었다'고 고백케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 일터, 사역에 '다 이루어졌습니다'는 고백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3. 예수님의 고난은 용납함입니다.

그 동안 주를 따르던 제자들의 욕심과 비겁을 기도와 인내로 용서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신 용납입니다. 그 용납을 예수님의 성만찬과 기도로 준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기도로 용납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묵인과 군병들의 조롱과 모욕까지 심지어 동역자들의 배신과 강도들의 십자가의 심판까지 용납하는 여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 참된 평화와 나음을 모두가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 고난주간 기획 - 십자가 사형제도 †

십자가사형제도는 사형방법 중 가장 잔인한 것으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최대한 고통을 가하는 한편 죽은 시신을 나무에 매단 채로 방치함으로써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사형의 끔찍함을 알리는 전시효과를 노렸다.

주전 1세기말 로마 제국은 식민지 사람들의 형벌로 중동의 십자가형을 공식적 사형방법으로 선택하여 로마정권에 대항했던 반란자들에 대한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우선 죄수가 십자가형의 연도를 받으면, 상의를 벗긴 채 나무 기둥의 허리부분에 양손이 묶여 죄수의 벗은 등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그 등을 로마군인

이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철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기진 할 때까지 때린다. 죄수의 몸에 채찍이 닿을 때마다 피가 튀기고 살점이 도려내 진다. 이토록 체벌을 받은 후에 죄수는 십자가의 가름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 걷는다. 형장에 도착하면, 이 가름대를 기둥에 맞추고 땅에 눕혀진 십자가 위에 죄수를 눕힌다. 죄수의 두발을 세로 기둥의 받침대에 올려 차렷자세 모양으로 두 발을 모으고 몸은 가로로 눕힌 상태가 된다. 죄수의 두 발이 세로 기둥에 나란히 모아진 상태에서 복사뼈 바로 밑에 대못을 박는다. 굵고 울퉁불퉁한 대못은 두 발의 복사뼈를 관통한 다음 나무에 깊이 박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상체를 비틀어서 바로 눕힌다. 다음에는 끈으로 양팔 목을 가름대에 묶고 양손의 손목뼈 사이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한 다음 십자가를 세워 고정시킨다. 상체가 뒤틀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대단한 통증을 느끼며 낮에는 뜨거운 땀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때로는 날짐승의 공격을 받으며, 고통 중에서 서서히 죽게 된다. 그러나 죄수를 급히 죽여야 할 경우에는 큰 나무망치로 정강이 뼈를 쳐서 부러뜨린다.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형을 당시 사람들은 저주라고 부르며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고통과 수난을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다.

실업인 선교회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선교전략의 일환으로 실업인 선교회를 두고 있다.

1992년 1월 "실업인 선교회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초창기에는 김치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는 등 주로 김치세미나의 지원 활동을 하였고 새 예배당 입당을 앞둔 2000년 11월 총회 이후 사업계획을 새롭게 구상하고 성경공부를 통한 회원들의 영적 충전에 주력하는 한편 김치세미나의 지원 활동과 C3tv와 호산나tv의 당회장 이종운 목사의 인터넷 설교방송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성도들이 증가하며 급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되어 있는 교회의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들의 규모가 커지고 대외적인 위상 또한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진 상황에서 실업인 선교회의 역할과 사명 또한 지금보다 더욱 비중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비즈니스를 통한 복음의 전파라는 측면에서는 경영자의 신앙적 사고와 비전이 종업원들의 생활양식과 행동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상기하면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선교가 아닐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에서 실업인 선교회가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실업인 선교회는 외부 강사를 초빙, 실업인 선교회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부부동반 숯불이 대화를 갖는 등 회원의 친목과 교제에도 적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정수 장로(실업인 선교회 회장)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서울교회에서 실업인 선교회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회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믿음의 성숙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상호 교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실업인 선교회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교회 홈페이지의 실업인 선교회 소개 페이지의 활용을 통해 실업인 선교회를 적극 홍보하고 회원 기업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함으로써 성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한다. 또한 E-Mail을 회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여 회원간의 관계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한다.

앞서 밝혔듯이 실업인 선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모쪼록** 우리 실업인 선교회가 보다 강한 결속력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 전파하는 것은 물론 교회의 성장에도 일조하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이 사회에는 힘을 주고 빛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기단기선교팀이 찾아갈 나라

몽골

국명은 1992년 1월 13일 몽골인민공화국(Mongolian People's Republic)에서 몽골로 변경. 공식명칭은 몽골리아(Mongolia)로서, 징기스칸에 의해 통솔된 몽골부의 발전에 따라 민족명 "Mongol" 및 지역명 "Mongolia"로 변화되었다. 수도는 울란바타르(Ulaanbaatar)이다. 면적은 156.7만km²(한반도의 17배). 몽골은 1921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90년 구 소련의 멸망과 민주개혁으로 인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 북쪽에는 산림이 많고 남쪽에는 고비사막, 나머지는 평지가 공존하는 나라로 전체 평균해발 1,580 미터의 고산지대이며 강력한 대륙성 기후로 가을과 봄이 적으며 봄에는 바람이 많다. 겨울과 여름 및 남북간 기온차가 크며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이 10월중순에서 4월까지로 길며 여름은 7,8월로 짧다.

몽골인들은 여러 개의 부족으로 몽골족(89%), 카자흐족(6%), 기타 브리야트, 다리장가, 다르베트, 러시아인과 중국인들 소수도 몽골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약 400만명의 몽골인들이 러시아, 내몽골 등 몽골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 언어는 90% 이상이 할하 몽골어(Khailha Mongol)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7%의 인구는 돌궐어를 사용하고 있다. 몽골의 문맹률은 2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종교는 전체 인구의 94% 정도가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 및 미신을 믿고 있으며, 1921년 혁명 전 몽골 남자의 1/3이 라마교도였으나 혁명 후 정부의 탄압정책으로 현재는 라마교의 사회영향이 크지 않으나 아직도 다수의 신자가 있다. 6%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신자의 대다수가 남서쪽에 살고 있다.



단신

†영동시찰회오임: 서울강남노회 영동시찰회가 25일 11시 일심교회당에서 모인다. 노회총대들의 참여를 바란다.

†강남노회연합회 총회: 서울강남노회연합회 전도회 연합회(회장:주경자권사)는 28일 10시 30분 우리교회에서 15차 정기총회를 갖는다.

☉금주의 식사제공: 김원중집사 · 이갑연집사 (특납을 감사하며)

주님의 마지막 말씀

백정순 권사(할렐루야 찬양대원)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이여
내 말 들으라, 나를 보라.
내 겪은 슬픔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이번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활절 절기 연주를 하는 '십자가상의 절언은' 이토록 처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린 내래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칸타타에는 첫째 말씀인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주님의 말씀부터 일곱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기까지 한 곡, 한 곡에 주님의 홀리신 피가 묻어나는 듯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불쌍한 인생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을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

이번 칸타타를 연습하며 나는 다시 한 번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 동안 십자가 근처에 서성거리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 바로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간 간혹 부활절 절기 연주를 했지만 거의가 예수님 부활에 초점을 맞추었던 곡으로 이번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세밀하게 다룬 것은 처음 접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며 주님의 고난이 내 안으로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기간 동안 지휘자 집사님의 병보를 접하면서 그 동안 우리 대원들이 알게 모르게 지휘자 집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 대원들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으시고 일찍 퇴원을 하시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 내음이 풀풀 나는 이 부활절에 칸타타 '십자가상의 절언'을 통하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8일(목) 오전 강남노회연합회 전도회 연합회 개최예배에서 설교한다. 오후에는 한국장로교연합회 정제성위원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을 한다.
- 이사: 전기설장로 · 원영애집사(2교구) 경기 용인수지읍 성북리90 LG빌리지 2차 207/1601 031)262-3204
- 전광영 집사 개인전 3월27일 오후3시 국제갤러리 735-8449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1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